

함평군, 우량 감성돔 치어 방류



함평군은 지난 20일 함평만 연안 해역에 우량 감성돔 치어 총 12만 5000마리를 방류했다.

군은 바다환경 및 생태계 변화로 함평만에 서식하는 어류 수가 줄어 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우량 수

전남도 해양수산기술원·월천어촌계 등 참여 함평만 연안해역 우량 치어 12만여 마리 방류

산종묘를 방류하고 있다.

함평군 손불면 월천항 일대에서 실시된 이번 방류에는 전남도 해양수산기술원, 월천어촌계, 지역어업인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함평만 일대에서 서식하기 좋은 우량 감성돔 치어를 방류해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살포된 종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조업을 금지하거나 특정 어구사용을 제한할 방

침이다.

또 오는 6월 말에는 꽃게 치어 23만 7000마리를 추가 방류하는 등 지역 해역 특성에 맞는 우수 어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량 수산종묘 방류는 함평만 수산자원증식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량 치어를 지속 매입·방류해 양질의 수산자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천 기자

나주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전남도·경찰청·소방본부 등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협력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지난 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라남도, 전남지방경찰청(112상황실), 전남소방본부(119상황실), 나주경찰서, 나주소방서 등 관계기관 및 부서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교통·방범·방재·환경 등 분야별

도시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재난·구조·범죄예방 등 스마트한 도시 안전망을 조성, 지원한다.

국토부 공모 선정에 힘입어 국비 6억 원, 시비 6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확보한 시는 지난 5월 조달청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흥군, 생물테러 대응 합동훈련 개최

보건소·경찰서·소방서·육군 등 7개 유관기관 100여명 참가

장흥군은 19일 장흥군통합의학센터 벤션센터 주차장에서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유관기관과 공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테러 및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실시했다.

훈련에는 장흥군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관내 병원 등 7개 기관 100여명이 참가했다.

훈련은 장흥군 통합의학박람회

기간 중 탄저균 생물테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했다.

사건발생 후 신고 받은 경찰이 유관기관에 최초 상황 전파와 인명대피 등 초동조치 실시했다.

경찰의 긴급출동 후 현장봉쇄 하에 소방의 환경검체 검사의뢰 및 환경검체, 보건소의 독소다중탐지키트 검사, 군부대의 차량봉쇄선 설치와 주민보호 등 총 4단계에 걸쳐 기관별

역할 분담을 실천하며 재현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장성군, 모든 경로당 찾아 어르신 우울증 선별검사

장성군이 어르신들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관내 339개의 모든 경로당을 찾아가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건강 교육을 추진한다.

"2019년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장성군은 노인 우울 척도(S-GDS)를 활용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 대상자에게는 군 보건소 정신건강 전문가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사와 연계해 1:1 상담,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내 정신 의료기관과 치료연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우울 검사 후 정신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안내하고 혈압·혈당 검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노년기에는 직업의 은퇴, 경제적 어려움, 질병, 가족과의 단절 등 각종 생활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이 빠지기 쉽고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기에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노인대상 우울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이의신청'

법원의 화해권고 존중하나, 현실적 애로 많아

담양군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부당이득금(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반환 소송과 관련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메타랜드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2천원인 입장료를 1천원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메타랜드 내 각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

라는 법원의 권고에 대해 "권고 사항은 존중하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소한의 입장료로 폭력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0월 입법예고로 성인요금 1,000원에서 2,000원, 청소년 요금 700원에서 1,400원, 어린이 요금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인상이 과하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700원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2014년 12월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군 측은 "메타랜드의 주요시설인 어린이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등의 주변 이용객인 어린이, 청소년들로부터 각 시설 이용 시 다시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 될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메타랜드를 조성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관광객들도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시설마다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군도 시설마다 매표소 관리 인원을 배치할 경우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전남도내 주요 관광지(33개소) 평균 입장료는 약 3,100원(성인기준)으로 메타랜드와 같이 별도의 놀이시설 등을 갖춘 곳은 최소 2,000원 이상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타 관광지에 비해 결코 비싸다고 볼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담양군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메타랜드의 시설물 관리운영만 해도 20여 명이 넘는 직원이 필요하며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연간 9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며 "개별 시설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통합적으로 메타랜드의 입장료만 최소 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이의신청을 하게 됨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의료급여 제도 안내 교육' 시행



화순군은 지난 19일과 20일 의료급여 수급자 70명을 대상으로 화순

군민종합문화센터 특성화실에서 '의료급여 제도 안내 교육'을 했다.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와 과다 의료급여 이용자에게 의료급여 제도,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방법, 합리적인 약물 복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는 질환별 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안내 교육에 큰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교육은 의료급여 일수(질한별 365일 사용) 등 의료급여 현황과 제도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사전 교육을 시행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광군-한국조폐공사, 경제 살리기 맞손

전남 최초 모바일 상품권 발행...보안성 높이고 사용 편리



영광군은 지난 21일 한국조폐공사와 전남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자급의 지역 내 순환과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종이(지류) 상품권을 발행·유통해왔다.

요즘 대부분의 청년들이 현금 대신 휴대폰만 휴대하는 경우가 많아 종이 상품권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전라남도 최초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식에는 김준성 영광군수, 황문규 한국조폐공사 상임이사 등이 참석하여 모바일 상품권 발행과 운영

플랫폼의 신기술 적용 등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입출식 계좌를 개설한 후 5~10% 할인된 금액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다.

또한 위변조와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편의성과 안정성이 높아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호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양삼